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

Received: October 29, 2024
Revised: November 26, 2024
Accepted: December 07, 2024

김윤희¹, 최은실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¹,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최은실
가톨릭대학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미카엘관 606

E-MAIL:
ces726@catholic.ac.kr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2023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Feed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al Difficulties and Eating Behavior

Youn-Hea Kim¹, Eun-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만3~4세 자녀를 둔 어머니 297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섭식행동, 어머니 급식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아의 섭식행동 중에서 유아의 까다로운 섭식, 음식에 대한 반응, 포만감 반응, 음료욕구, 정서적 과식, 정서적 소식, 어머니의 급식태도 중에서 도구적 급식, 정서적 급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 어머니의 급식태도 중에서 다양성 격려, 흥미 격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섭식행동 중에서 정서적 과식, 정서적 소식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섭식행동 중에서 음식에 대한 반응, 음료 욕구와의 관계를 어머니의 흥미 격려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유아의 섭식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머니의 적응적인 급식태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유아, 까다로운 기질, 섭식행동, 어머니 급식태도, 조절효과



© Copyright 202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유아기는 발달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영양 섭취 및 건강한 섭식 습관 형성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및 이후 성장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섭식행동은 음식의 선택, 섭취, 섭취량 조절과 관련된 모든 생리적, 행동적,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습관과 행동을 의미한다(Wardle et al., 2001). 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이후 아동기 및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바른 섭식행동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서소정, 신한승, 2009; Wilson et al., 1998).

Bandura(1978)의 상호결정론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유전, 환경, 행동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간다고 한다. 상호결정론 모델에 따라 유아의 섭식행동과 관련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유전적 요인은 기질이다. 기질은 생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 행동, 주의 반응에 대한 개인차(Rothbart & Derryberry, 1981)이고, 시간이나 상황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적 특성이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최은실, 2020). 같은 양육자에서 성장하여도 기질에 따라 각자 다른 섭식행동을 보일 수 있기에 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섭식행동의 개인차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김남희, 김미현, 2014; Hafstad et al., 2013; Haycraft et al., 2011; Ju & Bost, 2024; Steinsbekk et al., 2020). 이렇듯 유아의 기질과 섭식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높거나, 적응성이 낮거나, 생체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우울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유아는 섭식행동과 섭취량에 어려움을 겪고(김남희, 김미현, 2014; Stunkard & Messick,

1985), 부정정서가 높은 유아는 정서적 과식을 하거나 식사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의도적 조절이 높은 유아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외향적인 유아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빠른 속도로 먹을 가능성이 높다(Steinsbekk et al., 2020).

각각의 기질 요인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질의 조합을 통해 변인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인간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활용한다면, 사람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서미정, 공유경, 2020; Laible et al., 2014). 하나의 기질은 다른 기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 기질 요인의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Howard & Hoffman, 2018). 기질의 구성 요소를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느린 기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 또한 요인 중심적 접근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Thomas & Chess, 1977).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이란, 무엇을 왜 하는가와 같은 동기 및 능력이 아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와 같은 유아의 행동 양식 및 행동 유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뉴욕 종단 연구(NYLS)에서 부모 대상 면접을 실시하여 9개 기질 요인을 제안하였다. 그 중 정서성, 적응성, 규칙성, 접근 혹은 회피, 반응강도의 5개의 구성요인을 질적 분석한 후, 순한 기질, 더딘 기질, 까다로운 기질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전체 유아의 약 10%가 까다로운 기질에 속한다고 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은 새로운 사람 또는 환경에서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자주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표현하는 아이들을 의미한다(Thomas & Chess, 1981).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 정서가 높고 위축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조절해주는 의도적 통제가 낮아서 정서행동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양육자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최은실, 2022).

부정 정서 기질은 기분의 불안정성, 분노 반응성, 부정적인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Rothbart et al., 1994). 부정 정서 기질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부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섭식행동 또한 정서 조절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부정 정서를 낮추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Steinsbekk et al., 2020; Temmen et al., 2021). 이는 정서 조절 및 도피 모델(Emotional Regulation and Escape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조절하거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음식에 접근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부정 정서를 낮추는 매커니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Heatherton & Baumeister, 1991). 부정 정서가 높을수록 음식을 즐기는 행동 감소, 느린 식사 속도, 식욕 감소로 인한 높은 포만감, 까다로운 섭식행동, 정서적 과식, 정서적 소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Hafstad et al., 2013; Haycraft et al., 2011; Steinsbekk et al., 2020).

행동억제 기질은 낯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경향성을 나타낸다(Kagan, 2003).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개인은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되는 경향성을 타고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긴장되고 얼어붙으며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arinopolous et al., 2010).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들은 낯선 사람과 상황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가 높은 아동은 식욕이 좋지 않은 것에 비해, 자극 추구가 높은 아동은 편식과 야식을 많이 한다(김남희, 김미현, 2014).

의도적 조절 기질은 주의 전환 및 충동 억제, 만족 지연과 관련되며, 실행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Miyake & Friedman, 2012). 즉, 스트레스 자극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특정 자극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등의 통제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 조절 기질이 높은 유아는 음식을 즐기더라도 충동을 억제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섭식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Steinsbekk et al., 2020).

다음으로 유아의 섭식행동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양육자의 급식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급식태도란 부모의 자녀 양육 영역 중, 섭식과 관련된 행위 및 태도를 개념화한 것으로, 자녀의 식품기호와 섭식행동, 체중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Birch & Boub, 2014). 특히 어린 연령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급식태도는 일반적인 양육 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Hubbs-Tait et al., 2008).

Wardle 등(2002)은 급식태도 설문지를 개발하며 도구적 급식, 정서적 급식, 통제적 급식, 식사에 대한 격려의 차원으로 급식태도를 측정하였다. 도구적 급식은 음식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급식태도이다. 양육자의 도구적 급식태도는 자녀의 음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해당 음식에 대한 기호를 감소시킨다(Newman & Taylor, 1992).

정서적 급식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을 주는 급식태도이다. 양육자의 정서적 급식태

도가 높을 때, 자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을 위안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서적 섭식은 배고픔이 아닌 부정적 정서 상태에 반응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섭식 및 폭식 행동과도 관련이 높다(Masheb & Grilo, 2006).

통제적 급식은 자녀의 식사 시간, 양, 종류 등을 양육자가 정하는 급식태도를 나타낸다. 어머니의 통제적 급식태도가 높을 경우, 자녀가 음식에 집착하도록 하는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양육자의 통제적 급식태도는 자녀가 제한된 음식을 과도하게 갈망하게 하고, 제한이 풀렸을 때 과식을 유도한다(Birch et al., 1982). 유아는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자의 급식 환경 안에서 섭취 음식과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 자율성 및 의도적 조절을 발달해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양육자의 급식태도는 자녀의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Mogharreban & Nahikian-Nelms, 1996).

식사에 대한 격려는 다양성과 흥미 격려로 나뉘는데,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녀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태도를 의미한다. 양육자의 식사 격려는 자녀의 칼로리 섭취와 관련이 높고, 양육자가 다양성, 흥미격려의 급식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는 새롭고 다양한 음식에 시도하고, 음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Wardle et al., 2002). 이처럼 양육자의 급식태도는 유아의 섭식행동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까다로운 섭식행동은 양육자의 급식태도와 상호작용하며 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자녀의 까다로운 섭식행동이 양육자로 하여금 자녀의 신호나 요구의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강압적, 통

제적, 도구적인 급식태도를 취하게 하여 유아의 섭식행동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며 악순환을 만든다(Mallan et al., 2018).

이처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섭식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러한 관계는 양육자의 급식태도와 상호작용하여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Thomas와 Chess(1977)는 까다로운 기질 자체보다 기질과 양육 환경 간의 조화가 아동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적합성모델(goodness-of-fit model)을 제안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하여 회피 반응을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Thomas & Chess, 1977) 섭식행동에서도 과하게 음식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특정 음식을 거부하거나 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Wardle, 2001), 양육자가 자녀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응적이고 지지적인 급식태도를 취한다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부적응적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Laukkane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머니 급식태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정한 섭식행동을 발현시키거나 억제하는 어머니의 급식태도를 확인하여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섭식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개입점을 찾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섭식행동, 어머니의 급식태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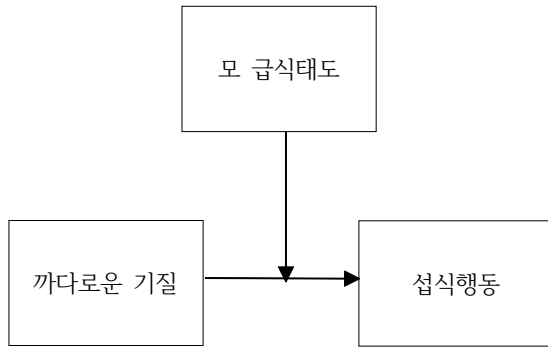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 문제 2.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의 관계를 어머니의 급식태도가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문 리서치 업체의 패널로 등록된 서울, 경기 지역의 만3~4세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섭식행동, 어머니의 급식태도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1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자녀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표본 22명을 제외하고 29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6.91세($SD=3.53$)였고, 거주지는 서울 113명(38%), 경기 184명(62%)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 19명(6.4%), 전문대졸 47명(15.8%), 대졸 188명(63.3%), 대학원 이상 43명(14.5%)이었다. 대상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 147명(49.5%), 여아 150명(50.5%)이었고, 자녀 연령은 만3세 133명(44.8%), 만4세 163명(54.9%)이었다.

연구도구

STS 6요인 기질 검사 유아용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최은실 등(2022)이 개발한 유아 기질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다양한 기질 이론을 기반으로, 국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기질에 대한 심층면접을 하고, 합리적-경험적 접근(Rational-empirical)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하위요인은 활동성, 조심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사회적 민감성, 의도적 조절의 6개 영역이고,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은실(2022)이 제안한 6가지 기질 중 높은 부정정서, 높은 조심성, 낮은 의도적 조절의 조합을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부정정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며, 조심성은 낯선 사람과 환경에 대해 조심하는 경향, 의도적 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부정정서, 조심성, 의도적 조절 요인에 해당하는 22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정서와 조심성 문항은 정문항으로 채점하고 의도적 조절은 역문항으로 채점하여 합산점수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기질임을 의미한다. 5점 Likert식 척도(1='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기질 특성이 강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정정서 .841, 조심성 .897, 의도적 조절 .809로 나타났다.

유아의 섭식행동

유아의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Wardle 등(2001)이 개발한 아동섭식행동설문지를 정경미와

주정현(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아동 섭식행동 설문지(Children's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K-CEBQ)를 사용하였다. 만 2세에서 9세의 아동의 섭식행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모 보고형 척도이고 총 35문항이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크게 음식 접근 유형(음식에 대한 반응, 음식즐기기, 정서적 과식, 음료욕구)과 음식 회피 유형(포만감에 대한 반응, 정서적 소식, 느린 식사 속도, 까다로움)으로 나눌 수 있다. 8개의 하위 요인에 대하여 개별 점수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CEBQ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고 5점 Likert식 척도(1='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하위 요인 별로 합산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72였고, 8개의 하위 요인의 신뢰도 범위는 .745 ~ .923이었다.

어머니 급식태도

어머니의 급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ardle 등(2002)이 개발한 부모급식태도설문지(Parental Feeding style Questionnaire: PFSQ)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심리학 박사 1인,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양육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서적 급식(자녀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태도), 도구적 급식(특정 행동을 보상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음식을 사용하는 태도), 식사에 대한 통제(자녀의 식사 시간, 식사량, 음식 종류 등을 통제하는 태도), 다양성 격려(자녀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태도), 흥미 격려(자

녀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태도)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27문항 부모 보고형 5점 Likert식 척도(1='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하위 요인 별로 합산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1이었고, 5개의 하위 요인의 신뢰도 범위는 .560 ~ .882로 측정되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고, 승인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1040395-202302-17). 설문조사는 리서치 업체를 통해 2023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진행되었다. 리서치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만 3~4세 자녀의 어머니 297명은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설명문을 읽고 동의 후 자기보고식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유아의 기질, 유아의 섭식행동, 어머니 급식태도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내외였으며 설문이 종료된 후 응답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받았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ver. 4.2의 MODEL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투입하고, 종속 변수에는 K-CEBQ의 하위요인 8개(음식 즐기기, 정서적 과식, 정서적 소식, 음식에 대한 반응, 포만감에 대한 반응, 까다로움, 느린 식사 속도, 음료 욕구), 조절변수에는 PFSQ의 하위요인 5개(정서적 급식, 도구적 급식, 통제, 다양성격려, 흥미격려)를 투입하여 총 40개의 모형을 분석하고 조절효과가 유의한 모형 4가지를 제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분산성, 집중 경향도 및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변인들의 왜도의 범위는 $-0.55 \sim 0.50$ 로 $|3|$ 을 넘지 않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 역시 $-1.26 \sim 0.92$ 로 $|10|$ 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에 부합한다(Kline, 2015).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섭식행동, 어머니 급식태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기질	1														
	2	.27***	1												
	3	.14*	-.37***	1											
유아	4	.32***	.36***	-.08	1										
섭식	5	-.10	-.59***	.63***	-.42***	1									
행동	6	.16**	.04	.40***	.23***	.16**	1								
2-9	7	.29***	-.07	.51***	.23***	.24***	.33***	1							
	8	.17**	.13*	.10	.36***	.01	.23***	.26***	1						
	9	.01	.35***	-.33***	.40***	-.55***	-.04	-.22***	.21***	1					
	10	.22***	.08	.31***	.32***	.02	.36***	.39***	.23***	-.02	1				
모급식	11	.00	-.09	.02	-.07	.14*	-.12*	-.08	-.06	-.07	.01	1			
태도	12	.19**	-.06	.33***	.24***	.12*	.36***	.43***	.29***	-.04	.68***	-.13*	1		
10-14	13	-.19**	-.21***	.07	-.01	.26***	.00	-.16**	.09	.03	-.04	.09	-.04	1	
	14	-.24***	-.10	.00	-.06	.16**	-.01	-.09	.08	.01	-.04	.08	.01	.62***	1

* $p < .05$. ** $p < .01$. *** $p < .001$.

1.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유아 섭식행동(2-9), 2. 까다로운 섭식, 3. 음식에 대한 반응, 4. 포만감반응, 5. 음식즐기기, 6. 음료욕구, 7. 정서적 과식, 8. 정서적 소식, 9. 느린식사속도

모 급식태도(10-14), 10. 도구적 급식, 11. 통제적 급식, 12. 정서적 급식, 13. 다양성격려, 14. 흥미격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아의 섭식행동 중에 까다로운 섭식($r=.27, p<.001$), 음식에 대한 반응($r=.14, p<.05$), 포만감 반응($r=.32, p<.001$), 음료욕구($r=.16, p<.01$), 정서적 과식($r=.29, p<.001$), 정서적 소식($r=.17, p<.01$), 도구적 급식($r=.22, p<.001$), 정서적 급식($r=.19,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다양성격려($r=-.19, p<.01$), 흥미격려($r=-.24,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까다로운 섭식은 포만감반응($r=.36, p<.001$), 정서적 소식($r=.13, p<.05$), 느린식사속도($r=.3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음식에 대한 반응($r=-.37, p<.001$), 음식즐기기($r=-.59, p<.001$) 다양성격려($r=-.21,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음식에 대한 반응은 음식즐기기($r=.63, p<.001$), 음료욕구($r=.40, p<.001$), 정서적 과식($r=.51, p<.001$), 도구적 급식($r=.31, p<.001$), 정서적 급식($r=.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느린식사속도($r=-.33,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포만감 반응은 음료욕구($r=.23, p<.001$), 정서적 과식($r=.23, p<.001$), 정서적 소식($r=.36, p<.001$), 느린식사속도($r=.40, p<.001$), 도구적 급식($r=.32, p<.001$), 정서적 급식($r=.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음식즐기기($r=-.42,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음식즐기기는 음료욕구($r=.16, p<.01$), 정서적 과식($r=.24, p<.001$), 통제적 급식($r=.14, p<.05$), 정서적 급식($r=.12, p<.05$), 다양성격려($r=.26, p<.001$), 흥미격려($r=.16, p<.0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느린식사속도($r=-.55,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음료욕구는 정서적 과식($r=.33, p<.001$), 정서적 소식($r=.23, p<.001$), 도구적 급식($r=.36, p<.001$), 정서적 급식

($r=.36,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통제적 급식($r=-.12,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과식은 정서적 소식 ($r=.26, p<.001$), 도구적 급식($r=.39, p<.001$), 정서적 급식($r=.4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느린식사속도($r=-.22, p<.001$), 다양성격려($r=-.16,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소식은 느린식사속도 ($r=.21, p<.001$), 도구적 급식($r=.23, p<.001$), 정서적 급식($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급식은 정서적 급식($r=.6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급식은 정서적 급식($r=-.13,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다양성격려는 흥미격려($r=.6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22)가 제안한 조절효과 모형(Model 1)을 통해 확인하였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40개의 모형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4가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정서적 과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의 조절효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의 정서적 과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B=.06, p<.05$). 조절효과 분석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단순 기울기

표 2.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정서적 과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

		B	SE	t	LLCI	ULCI
독립변수	유아의 까다로운기질	-.15	.31	-.50	-.75	.45
조절변수	모 정서적 급식	.21	.03	7.3***	.15	.27
상호작용항	까다로운기질x정서적 급식	.06	.03	2.40*	.01	.12

$F=31.66, p<.001, R^2=.24, \Delta R^2=.01$

* $p<.05$. ** $p<.01$. *** $p<.001$.

표 3. 조절변수의 조건부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t	p
-1SD	.25	.17	1.46	.145
Mean	.52	.12	4.21***	.000
+1SD	.79	.17	4.73***	.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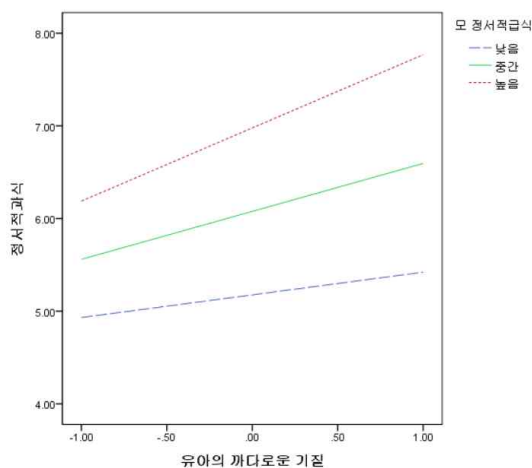


그림 2. 모 정서적 급식의 조절효과 그래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적 급식태도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값, 평균값,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값을 각각 낮음, 중간, 높음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지점에서 유아의 까다로

운 기질이 정서적 과식에 영향을 주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조건 중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중간인 집단 ($B=.52, p<.001$), 높은 집단($B=.79, p<.001$)에서는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낮은 집단 ($B=.25, p>.05$)에서는 단순 기울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정서적 과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정서적 과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의 조절효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의 정서적 과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B=-.10, p<.05$). 조절효과 분석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적 급식태도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값, 평균값,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값을 각각 낮음, 중간, 높음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지점에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정서적 과식에 영향을 주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조건 중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낮은 집단

표 4.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정서적 소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

		B	SE	t	LLCI	ULCI
독립변수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1.45	.49	2.96**	.49	2.42
조절변수	모 정서적 급식	.23	.05	4.89***	.14	.32
상호작용항	까다로운기질x정서적 급식	-.10	.04	-2.27*	-.18	-.01

$F=31.66, p<.001, R^2=.24, \Delta R^2=.01$

* $p<.05$. ** $p<.01$. *** $p<.001$.

표 5. 조절변수의 조건부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t	p
-1SD	.85	.27	3.15**	.001
Mean	.44	.20	2.21*	.028
+1SD	.02	.27	.09	.929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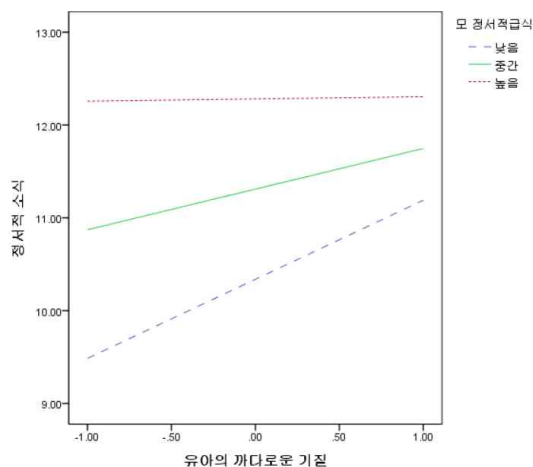


그림 3. 모 정서적 급식의 조절효과 그래프

($B=.85, p<.01$), 중간인 집단($B=.44, p<.05$)에서는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높은 집단($B=.02, p>.05$)에서는 단순 기울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수준에 상관 없이 정서적 소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을 경우에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일 수록 정서적 소식을 하는데,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낮은 경우에 기울기가 더욱 가파른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기질 보다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자체가 유아의 정서적 소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정서적 소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을 시사한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음식에 대한 반응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흥미 격려 급식의 조절효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의 음식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 태도의 조절효과의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18, p<.05$). 조절효과 분석은 표 6에 제시하고 있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흥미격려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흥미격려 급식태도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값, 평균값,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 값을 각각 낮음, 중간, 높음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표 6.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음식에 대한 반응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의 조절효과

		B	SE	t	LLCI	ULCI
독립변수	유아의 까다로운기질	3.59	1.48	2.42*	.67	6.51
조절변수	모 흥미격려 급식	.08	.09	.87	-.10	.25
상호작용항	까다로운기질x흥미격려 급식	-.18	.09	-2.03*	-.36	-.01

$F=31.66, p<.001, R^2=.24, \Delta R^2=.01$

* $p<.05$. ** $p<.01$. *** $p<.001$.

표 7. 조절변수의 조건부효과 검정

변수	Effect	SE	t	p
-1SD	1.29	.40	3.17*	.001
Mean	.79	.26	3.08*	.002
+1SD	.28	.30	.96	.33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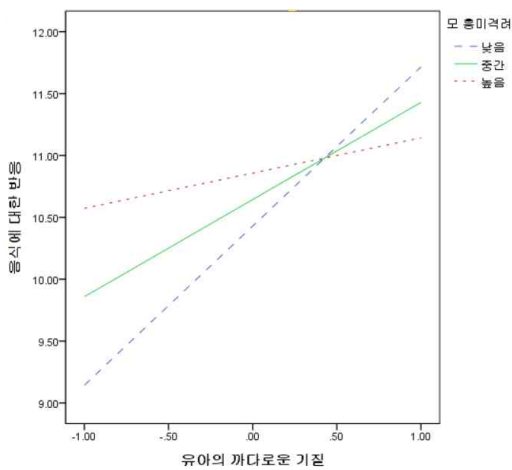


그림 4. 모 흥미격려의 조절효과 그래프

지점에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음식에 대한 반응에 주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조건 중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 수준이 낮은 집단($B=1.29, p<.05$), 중간인 집단($B=.79, p<.05$)에서는 단순 기울기가 유의

하게 나타났고, 높은 집단($B=.28, p>.05$)에서는 단순 기울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흥미 격려 급식태도 수준이 낮아질수록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음식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음료 욕구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흥미 격려 급식의 조절효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의 음료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의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17, p<.05$). 조절효과 분석은 표 8에 제시하고 있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흥미격려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흥미격려 급식태도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값, 평균값,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값을 각각 낮음, 중간, 높음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지점에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음식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조건 중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 수준이 낮은 집단($B=1.11, p<.001$), 중간인 집단($B=.64, p<.001$)에서는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높은 집단($B=.17, p>.05$)에서는 단순 기울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흥미

표 8.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음료 욕구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의 조절효과

		B	SE	t	LLCI	ULCI
독립변수	유아의 까다로운기질	3.28	1.09	3.01*	1.14	5.42
조절변수	모 흥미격려 급식	.05	0.07	.78	-.08	.18
상호작용항	까다로운기질x흥미격려 급식	-.17	0.07	-2.60*	-.30	-.04

$F=31.66, p<.001, R^2=.24, \Delta R^2=.01$

* $p<.05$. ** $p<.01$. *** $p<.001$.

표 9. 조절변수의 조건부효과 검정

변수	Effect	SE	t	p
-1SD	1.11	.30	3.73***	.000
Mean	.64	.19	3.42***	.000
+1SD	.17	.22	.78	.437

* $p<.05$. ** $p<.01$. *** $p<.001$.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만 3~4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급식태도가 조절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의 섭식행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영향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아의 까다로운 섭식, 음식에 대한 반응, 포만감 반응, 음료욕구, 정서적 과식, 정서적 소식, 도구적 급식, 정서적 급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다양성격려, 흥미격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일수록 정서적 자극이 있을 때 과식을 하고 하루 종일 음식을 찾거나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는 음식 접근 경향성과 적은 양에도 쉽게 배불러 하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행동, 정서적 자극이 있을 때 소식을 하거나 새로운 음식 보다는 익숙한 음식만 섭취하려는 음식 회피 경향성을 동시에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부정 정서 기질의 아동일수록 정서적 과식을 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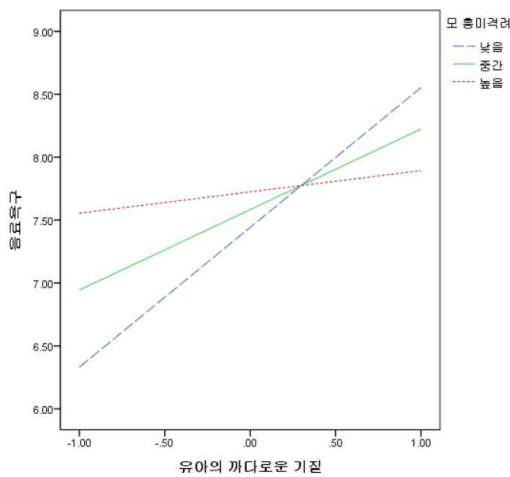


그림 5. 모 흥미격려의 조절효과 그래프

격려 급식태도 수준이 낮아질수록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음료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높고(Haycraft et al., 2011; Steinsbekk & Wichstrøm, 2018),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억제되고 소화 기능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정서적 과식을 하게 되어 음식 접근 및 음식 회피 행동을 동시에 보일 수 있다(Steinsbekk et al., 2020)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 일수록 음식을 도구적, 정서적 위안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다양하고 흥미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양육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기에(최은실, 2022) 반응적인 양육 보다는 도구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Aaron et al., 2023; Laukkanen et al., 2013)는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유아의 기질은 섭식행동, 섭취량, 섭식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 연구(김남희, 김미현, 2014; Steinsbekk et al., 2020),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불규칙적이고 까다로운 식사 패턴을 보이며 까다로운 섭식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연구(남원희 등, 2020; 염마영, 조윤옥, 2020; Thomas & Chess, 1981), 유아의 위험 회피, 자극 추구 기질이 섭식행동 문제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김미현, 김남희, 2010)와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둘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급식태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유아의 섭식행동(8요인)과 어머니 급식태도(5요인)을 조합하여 40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의 정서적 과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가 평균이거나 높을 때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였고, 정서적 급식태도가 낮을 때에는 단순기울기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정서적 과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평균이거나 높을 때에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과식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로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의 정서적 과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정서적 급식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음식을 정서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학습하도록 하여 정서적 과식을 야기한다(Arexix et al., 2023; Ju & Bost, 2024; Kim et al., 2024; Temmen et al., 2021)는 연구의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높을 때에는 까다로운 기질 수준이 낮은 유아 또한 정서적 과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육자의 정서적 급식은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음식을 정서 조절 수단으로 사용 패턴을 학습하게 하여 이후 과식, 폭식 등의 섭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Ju & Bost, 2024).

다음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정서적 소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가 평균이거나 낮을 때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였고, 정서적 급식태도가 높을 때에는 단순기울기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높을 때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정서적 소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평균이거나 낮을 때에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소식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로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 수준이 높을 때는 까다로운 기질 수준에 관계 없이 자녀가 정서적 소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소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 보다는 양육자의 정서적 과식, 갈등적인 가정 환경, 통제적인 양육 태도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Bjørklund et al., 2019; Herle et al., 2017). 본 연구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가 높을 때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수준과 상관 없이 정서적 소식 수준이 높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을 때에는 까다로운 기질과 정서적 소식 간의 관계가 유의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음식에 대한 반응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의 조절효과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가 평균이거나 낮을 때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였고, 흥미격려 급식태도가 높을 때에는 단순기울기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 수준이 높을 때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음식에 대한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 수준이 평균이거나 낮을 때에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일수록 음식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로는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일수록 하루종일 음식을 찾거나 섭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흥미에 따라 음식을 제공할 때 까다로운 기질과 음식 반응성 간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 반응성은 영아기부터 개인차가 발견되는 특성이며, 음식 반응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섭식 조절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기에 반응성이 높고 지지적인 급식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Harris et al., 2022).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음료 욕구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흥미 격려 급식태도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가 평균이거나 낮을 때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였고, 흥미격려 급식태도가 높을 때에는 단순기울기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 수준이 높을 때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음료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 수준이 평균이거나 낮을 때에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일수록 음료 욕구가 높는데 이러한 경로는 어머니의 흥미격려 급식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일수록 음료수를 자주 찾고 선호하는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흥미격려 수준이 높을 때에는 까다로운 기질과 음료욕구 간의 관련성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통제적, 도구적 급식태도가 자녀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갈증보다는 외적인 이유로 음료섭취를 유도할 수 있기에 지지적이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급식태도를 통해 음료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Lora et al., 2016)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태도는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정서적 섭식을 하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흥미 격려와 같은 반응적이고 지지적 급식태도는 까다로운 기질과 음식 접근 행동(음식에 대한 반응, 음료 욕구) 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섭식행동,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아의 섭식행동은 심리적인 변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유아의 섭식행동 및 양육자의 급식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40개의 모형 중 4개의 모형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도 기질과 섭식행동의 상관관계에서 부정정서와 정서적 과식, 정서적 소식 간의 관계는 일관성 있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만, 다른 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Steinsbekk et al., 2020). 때문에 사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대상군에서 기질, 섭식행동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의 섭식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급식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서적 급식, 도구적 급식, 통제, 흥미 격려, 다양성 격려 등 어머니의 다양한 급식태도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의 섭식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

의 선행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급식태도가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 및 섭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검증했기에(Arexis et al., 2023; Ju & Bost, 2024; Kim et al., 2024; Temmen et al., 2021) 어머니의 급식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급식태도를 조절효과로 검증하여 높음, 중간, 낮음 수준에 따라 까다로운 기질과 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Bandura(1978)의 상호결정론 모델에 따라 유아의 기질, 섭식행동, 어머니의 급식태도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급식은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흥미 격려, 다양성 격려와 같은 반응적이고 지지적인 급식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기에 차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유아기 섭식행동 관련 부모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 접근, 회피 행동을 보이며 양육자로 하여금 도구적, 정서적, 급식태도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고(Arexis et al., 2023; Bjørklund et al., 2019; Ju & Bost, 2024; Steinsbekk et al., 2020), 양육자와 정서적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최은실, 2022),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김남희, 김미현, 2014; 염마영, 조윤옥, 2020; Wardle et al., 2002). 때문에 유아와 양육자 모두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 및 섭식행동에 따라 적합한 급식태도를 제안해야 하는 부모교육 과정에 치료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급식태도 설문지를 내용타당도만 검증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후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도록 타당도가 검증된 부모 급식 및 양육태도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급식태도를 측정하였는데, 유아들은 가정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도 거의 매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유아기 섭식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남희, 김미현 (2014). 유아의 기질 및 성격과 식 행동 간의 관련성.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7(6), 979-989.
<https://doi.org/10.9799/KSFAN.2014.27.6.979>
- 남원희, 최은실, 윤진영, 최해훈 (2020). 부모용 유아 기질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36-72개월을 대상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69-95.
<http://dx.doi.org/10.36431/JPE.12.3.4>
- 서미정, 공유경 (2020).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한 유아의 기질 유형화 및 유형별 행동문제와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3), 427-442.
<https://doi.org/10.7856/kjcls.2020.31.3.427>
- 서소정, 신한승 (2009). 영유아의 식행동, 발달 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영양 태도 및 영양 지식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9(6), 839-845.
- 염마영, 조윤옥 (2020). 까다로운 식행동을 가진 유아의 영양섭취 평가와 급원 식품.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26(4), 289-305.
<https://doi.org/10.14373/JKDA.2020.26.4.289>
- 정경미, 주정현 (2012). 한국형 아동 섭취행동 질문지(K-CEBQ)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7(4), 943-961.
<https://doi.org/10.17315/kjhp.2012.17.4.010>
- 최은실 (2020). 기질에 대한 고찰. **발달지원연구**, 9(3), 85-108.
<https://doi.org/10.22839/adp.2020.9.3.85>
- 최은실 (2022). 유아 기질 유형에 따른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열린부모교육연구**, 14(4), 203-232.
<https://doi.org/10.36431/JPE.14.4.11>
- 최은실, 윤진영, 최해훈, 김수아 (2022). **6요인 기질검사(STS) 유아용**. 서울: 학지사.
- Aaron, E. M., Baumgartner, N. M., & Kiel, E. J. (2023). Temperament, parenting, and child anxiety. *Advances in Psychiatry and Behavioral Health*, 3(1), 139-147.
<https://doi.org/10.1016/j.ypsc.2023.03.017>
- Arexis, M., Feron, G., Brindisi, M.-C., Billot,

- P.-É., & Chambaron, S. (2023). A scoping review of emotion regulation and inhibition in emotional eating and binge-eating disorder: What about a continuum?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1*, 197.
<https://doi.org/10.1186/s40337-023-00916-7>
- Bandura, A. (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4), 344-358.
<https://doi.org/10.1037/0003-066X.33.4.344>
- Birch, L. L., Birch, D., Marlin, D. W., & Kramer, L. (1982). Effects of instrumental consumption on children's food preference. *Appetite*, *3*(2), 125-134.
[https://doi.org/10.1016/S0195-6663\(82\)80005-6](https://doi.org/10.1016/S0195-6663(82)80005-6)
- Birch, L. L., & Boub A. E. (2014). Learning to eat: birth to age 2y. *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99*, 723-728.
<https://doi.org/10.3945/ajcn.113.069047>
- Bjørklund, O., Wichstrøm, L., Llewellyn, C. H., & Steinsbekk, S. (2019). Emotional over- and undereating in children: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ild and contextual predictors. *Child Development*, *90*(6), e803-e818.
<https://doi.org/10.1111/cdev.13110>
- Hafstad, G. S., Abebe, D. S., Torgersen, L., & von Soest, T. (2013). Picky eating in preschool children: The predictive role of the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 negative affectivity. *Eating Behaviors*, *14*(3), 274-277.
<https://doi.org/10.1016/j.eatbeh.2013.04.001>
- Harris, H. A., Moore, A. M., Ruggiero, C. F., & Savage, J. S. (2022). Infant food responsiveness in the context of temperament and mothers' use of food to soothe. *Frontiers in Nutrition*, *8*, 781861.
<https://doi.org/10.3389/fnut.2021.781861>
- Haycraft, E., Farrow, C., Meyer, C., Powell, F., and Blissett, J. (2011).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and eating behaviours in young children. *Appetite*, *56*, 689-692.
<https://doi.org/10.1016/j.appet.2011.02.005>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 Heatherton, T. F., & Baumeister, R. F. (1991). Binge eating as escape from self-awarenes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86-108.
<https://doi.org/10.1037/0033-2909.110.1.86>
- Herle, M., Fildes, A., Steinsbekk, S., Rijdsdijk, F., & Llewellyn, C. H. (2017). Emotional over- and under-eating in early childhood are learned, not inherited. *Scientific Reports*, *7*(1), Article 9092.
<https://doi.org/10.1038/s41598-017-09519-0>
- Howard, M. C., & Hoffman, M. E. (2018).

- Variable-centered, person-centered, and person-specific approaches: Where theory meets the method.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1(4), 846-876.
<https://doi.org/10.1177/109442811774402>
- Hubbs-Tait, L., Kennedy, T. S., Page, M. C., Topham, G. L., & Harrist, A. W. (2008). Parental feeding practices predict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style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8(7), 1154-1161.
<https://doi.org/10.1016/j.jada.2008.04.008>
- Ju, S., Iwinski, S., & Bost, K. K. (2024). Temperament and emotional overeating: The mediating role of caregiver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5, Article 1369252.
<https://doi.org/10.3389/fpsyg.2024.1369252>
- Kagan, J. (2003). Behavioral inhibition as a temperamental category.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320-331).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C. N., Messito, M. J., Duh-Leong, C., Katzow, M., Teli, R., & Gross, R. S. (2023). The effect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s on early childhood weight: A serial mediation model through emotional feeding and child appetite traits. *Appetite*, 187, 106477.
<https://doi.org/10.1016/j.appet.2023.106477>
- Laible, D., Carlo, G., Murphy, T., Augustine, M., & Roesch, S. (2014). Predicting children's prosocial and co-operative behavior from their temperamental profiles: A person-centered approach. *Social Development*, 23(4), 734-752.
<https://doi.org/10.1111/sode.12072>
- Laukkanen, J., Ojansuu, U., Tolvanen, A., Alatupa, S., & Aunola, K. (2013). Child's difficult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yl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2), 312-323.
<https://doi.org/10.1007/s10826-013-9747-9>
- Lora, K. R., Hubbs-Tait, L., Ferris, A. M., & Wakefield, D. (2016).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children's beverage intake: Differences in associations with desire to drink, fathers' feeding practices, and weight concerns. *Appetite*, 107, 558-567.
<https://doi.org/10.1016/j.appet.2016.09.012>
- Mallan, K. M., Jansen, E., Harris, H., Llewellyn, C., Fildes, A., & Daniels, L. A. (2018). Feeding a fussy eater: Examining longitudinal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 fussy eating and maternal feeding practic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43(10), 1138-1146.
<https://doi.org/10.1093/jpepsy/jsy053>
- Masheb, R. M., & Grilo, C. M. (2006). Emotional overeating and its associations with eating disorder psychopathology among overweight patients with binge

- eating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9(2), 141-146.
<https://doi.org/10.1002/eat.20221>
- Miyake, A., & Friedman, N. P. (2012). The nature and organiz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s: Four general conclus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1), 8-14.
<https://doi.org/10.1177/0963721411429458>
- Mogharreban, C., & Nahikian-Nelms, M. (1996). Autonomy at mealtime: building healthy food preferences and eating behaviors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4, 29-32.
- Newman, J., & Taylor, A. (1992). Effect of a means-end contingency on young children's food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3(2), 200-216.
[https://doi.org/10.1016/0022-0965\(92\)90049-C](https://doi.org/10.1016/0022-0965(92)90049-C)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 pp. 33-86). Psychology Press.
- Rothbart, M. K., Derryberry, D., & Posner, M. I. (1994). A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emperament. In J. E. Bates & T. D. Wachs (Eds.), *Temperament: Individual differences at the interface of biology and behavior* (pp. 83-11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M. Lerner (Series Eds.)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99-166). Wiley
- Sarinopoulos, I., Grupe, D. W., Mackiewicz, K. L., Herrington, J. D., Lor, M., Steege, E. E., & Nitschke, J. B. (2010). Uncertainty during anticipation modulates neural responses to aversion in human insula and amygdala. *Cerebral Cortex*, 20(4), 929-940.
<https://doi.org/10.1093/cercor/bhp155>
- Steinsbekk, S., & Wichstrøm, L. (2018). Cohort Profile: The Trondheim Early Secure Study (TESS)—A study of mental health,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health behaviour from preschool to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7(5), 1401-1401i.
<https://doi.org/10.1093/ije/dyy190>
- Steinsbekk, S., Bjørklund, O., Llewellyn, C., & Wichstrøm, L. (2020).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eating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A fixed effects approach. *Appetite*, 150, 104640.
<https://doi.org/10.1016/j.appet.2020.104640>
- Stunkard, A. J., Messick, S. (1985). The three-factor eating questionnaire to measure dietary restraint, disinhibition, and hunger. *Journal of Psychosomatic*

- Research*, 29(1), 71-83.
[https://doi.org/10.1016/0022-3999\(85\)90010-8](https://doi.org/10.1016/0022-3999(85)90010-8)
- Temmen, C. D., Lipsky, L. M., Faith, M. S., & Nansel, T. R. (2021).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maternal emotional eating, feeding to soothe, and infant appetitive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8, 105.
<https://doi.org/10.1186/s12966-021-01176-x>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Brunner-Mazel.
- Thomas, A., & Chess, S. (1981). The role of temperament in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s to their development. In W. A. Collins (Ed.),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pp. 231-255). Psychology Press.
- Wardle, J., Guthrie, C. A., Sanderson, S., & Rapoport, L. (2001).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Eating Behaviour Questionnaire.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7), 963-970
<https://doi.org/10.1017/S0021963001007727>
- Wardle, J., Sanderson, S., Guthrie, C. A., Rapoport, L., & Plomin, R. (2002). Parental feeding styl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obesity risk. *Obesity research*, 10(6), 453-462.
<https://doi-org.libproxy.catholic.ac.kr/10.1038/oby.2002.63>
- Wilson, A. C., Forsyth, J. S., Greene, S. A., Irvine, L., Hau, C., & Howie, P. W. (1998). Relation of Infant Diet to Childhood Health: Seven Year Follow up of Cohort of Children in Dundee Infant Feeding Study,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16(7124), 21-25.
<https://doi.org/10.1136/bmj.316.7124.21>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Feed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al Difficulties and Eating Behavior

Youn-Hea Kim¹

Eun-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feeding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ifficult temperaments and eating behaviors. We surveyed 297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4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difficult tempera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icky eating, food reactions, beverage cravings, emotional overeating, and emotional undereating, and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ncouragement of variety and interest in feeding. Emotional feeding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icult temperament and both emotional overeating and undereating. Additionally, encouraging interest in feeding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icult temperament and food reactions and beverage craving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for therapeutic approaches to enhance adaptive eating behaviors in children with difficult temperaments.

Keywords : preschoolers, temperamental difficulties, eating behavior, maternal feeding style, moderating effect